

경제활동 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the Impact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of the Working Elderly

오영경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Yeong-Kyong Oh(ykoh@kbu.ac.kr)

요약

목적: 본 연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우울과 일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이차 자료분석을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 3060명을 대상으로 하여 경로모형을 만들고 경로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결과:** 우울과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효과 크기는 우울(.38, $p=.019$)과 일 만족도(.22, $p=.009$) 모두 유의하였으며 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우울(.20, $p=.009$)의 효과도 유의하였다.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Z=7.17$, $p<.001$)가 유의하여 우울은 일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우울과 일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중 우울은 일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노인 | 매개효과 | 삶의 만족도 | 우울 | 일 만족도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job satisfaction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prove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Methods:** This study is a pathway analysis study using 3060 working elderly. This study was performed as secondary analysis using the data from the 2017 Korean Elderly Examination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way analysis. **Results:** Depressi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Life satisfaction was directly affected by depression(.38, $p=.019$) and job satisfaction(.22, $p=.009$). Job satisfaction was also directly affected by depression(.20, $p=.009$). Depression was mediated by job satisfaction in affecting to life satisfaction. **Conclusion:** Depression and job satisfaction affect to life satisfaction of the working elderly and life satisfaction is affected by depression via job satisfaction. It suggests that it needs to provide nursing intervention for job satisfaction for life satisfaction of the working elderly.

■ keyword : | Depression | Job Satisfaction |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 | The Elderly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421만명으로 20대의 경제활동인구를 추월하였다 [1]. 2015년 조사에서 한국인의 실질적인 은퇴 시기는 72.9세로 법정 은퇴 시기인 60세를 훌쩍 넘겨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을 뿐 아니라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함에도 소득은 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60%대로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았다[2]. 한국의 노년층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가족 가치관의 변화, 생활상의 급변을 모두 겪은 세대로서 경기침체기나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노인자살률 또한 높아지며[3] 직장으로 부터 은퇴뿐 아니라 자녀의 독립이나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4]. 노인의 경제생활은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으며[5] 특히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고 보고되어[6] 노인의 삶에 있어 사회경제적 요인은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156개국 중 54위에 해당하여 기대수명이 9위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낮은 순위를 보인다[7]. 특히 다른 연령대보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는데[8]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오래 살지만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서 나아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하며 이것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9]. 성공적인 노화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포함한 세 가지 요소를 고루 충족하는 개념[10]으로 삶의 만족도의 구성요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의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는 우울[4][5][9][11-13], 주관적 건강[4][9], 경제적 상태[4][6][9][14][15], 사회적 지지[5][9][15] 등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노인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노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6] 그 중에서도 특히 우울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고[4][5][9][11-13]되고 있다.

노인의 우울은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울증 비율은 2017년도 기준 21.1%로[16] 노인 5명 중 1명꼴에 해당한다. 특히 직업이 없는 노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높아[17] 노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하는 노인에게 있어서 일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13][18][19]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임금수준이 높고 생계비 마련 목적이 아닐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20]. 노인의 삶에 있어서 경제활동이란 소일거리와 소득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질적 연구 결과[21]를 고려해 볼 때 생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노년기 삶의 만족도 제고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일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노인의 경제활동이 노년기 삶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나 경제활동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과 일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는 더욱 드물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일 만족도는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22-24] 우울이 낮을수록 일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함께 우울이 보고되어[24] 노인의 경우에도 우울이 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활동참여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 [6]에서 만족스러운 사회활동의 경우에서 매개효과가 있었는데,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고, 이를 통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19] 경제활동 노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해마다 기대수명이 늘어가는 현 시점에서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적인 상황에 놓인 경제활동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일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하

고 이들 변수 간의 인과적 구조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우울과 일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일 만족도가 우울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에 대해 경제활동 측면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심리적 중재 서비스와 더불어 노인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실무적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활동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 노인의 특성에 따른 우울, 일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경제활동 노인의 우울, 일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경제활동 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3. 연구 모형

경제활동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 구성에 사용된 연구변수들은 우울,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며 외생변수 1개와 내생변수 2개로 구성되어 있다[Fig. 1].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우울은 일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일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외생변수는 우울이며, 내생변수는 일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이다. 연구모형에는 우울과 일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경로와 간접적 경로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따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경제활동 노인의 우울은 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경제활동 노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경제활동 노인의 일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경제활동 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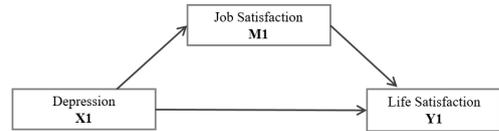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경제활동과 삶의 만족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 경제활동 인구가 30.9%로 2014년에 비해서 2% 증가하였는데[25], 경제활동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날의 주요 사회정책인 점과 베이비부머들이 퇴직 연령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미흡 및 개인의 노후 준비 부족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26]. 또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은 33.6%로 경제활동 노인의 비율보다 높았는데[25], 노인은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고령 노동자로 인식하기도 한다[27]고 하였다. 실제로 노인은 단순 노무직과 농림어업 숙련직에 73% 종사하고 있으며 관리직이나 전문직 비율은 4%에 불과하다[25].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15] 우리가 노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상용직 여부보다는 임금수준이 높고 근로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는데[20]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근로 임금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18]도 있다. 그러나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질수록 노인 자살률이 올라갔다는 보고[3]는 노인도 일정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노후가 행복할 수 있다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 측면에서 볼 때[28] 노인의 경제활동 자체가 노인의 삶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고

령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 경제활동 노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및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

2. 노인의 우울, 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2017년도 기준으로 노인자살 시도율이 13.2%이고 우울이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21.1%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16] 노인 우울에 대한 중재가 오늘날까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노인의 우울은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동시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되었다[4][5][13].

특히 일하는 노인에 있어서 일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13][18][19]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임금수준이 높고 일을 하는 목적이 생계비 마련이 아닐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20].

현재까지 노인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만 경제활동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노인의 우울과 일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노인이 아닌 직장인 대상의 연구에서 우울이 일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22-24], 우울은 직무 스트레스와 함께 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어[24] 노인의 경우에도 우울이 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이차 분석한 연구로, 경제활동 노인의 우울,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우울과 일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구축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경로분석을 수행하고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원시 자료를 이차 분석하였다. 원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요청하여 공식 승인을 얻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에서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대상 변수에 대한 결측치가 없는 노인 3060명을 대상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대상자의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 소득수준을 평가하였다. 연령은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74세 미만, 75세 이상 80세 미만, 80세 이상 85세 미만, 85세 이상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혼인상태는 기혼과 미혼으로 범주화하였고, 교육수준은 미취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가구 소득수준은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인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3.2 우울

우울은 조맹제 등[29]이 개발한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K)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역문항이 있다. 응답은 '예' 또는 '아니오'로 범주화되어 있다. 각 문항의 우울성 응답에 1점씩 부여하며 점수의 범위는 0~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함을 의미한다. SGDS-K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3.3 일 만족도

일 만족도는 '귀하께서는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의 질문에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매우 만족함', 2='만족함', 3='그저 그렇다', 4='만족하지 않음', 5='전혀 만족하지 않음')로 범주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3.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삶의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의 질문과 자신의 건강 상태, 자신의 경제 상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여가문화 활동,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상세 질문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매우 만족함', 2='만족함', 3='그저 그렇다', 4='만족하지 않음', 5='전혀 만족하지 않음')로 범주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73이었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원 데이터로 활용한 노인실태조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6월 12일 ~ 2018년 8월 28일이었으며 사전 훈련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노인실태조사 자료수집 전 IRB를 받고 조사원이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시 자료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승인하에 취득하였다. 제공받은 자료 파일은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에 보관하였으며 연구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sion 20.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으며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정도는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정규성 판단을 위해서는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점검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χ^2 검증과 GFI, RMSEA, NFI 및 CFI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넷째, 연구모형 내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추가로 Sobel Test를 이용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65~69세 29.2%, 70~74세 28.4%, 75~79세 28.7%, 80~84세 11.9%, 85세 이상 1.9%이었고 평균 나이는 73.34 ± 5.29 세였다.

성별 구분으로는 남성이 77.5%, 여성이 22.5%이었고, 혼인상태는 기혼이 99.9%이었다. 교육수준은 미취학 19.3%, 초등학교 졸업 36.0%, 중학교 졸업 20.4%, 고등학교 졸업 18.5%, 대학교 졸업 이상인 대상자가 5.8%이었다. 가구 소득수준은 1,000만 원 미만 15.2%,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37.1%,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1.1%,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1.0%,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8%, 5,000만 원 이상인 대상자가 8.8%이었다.

2. 측정변수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관측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울의 평균은 2.91 ± 3.34 점이었으며 일 만족도의 평균은 $2.47 \pm .90$ 점,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14.50 ± 2.89 점이었다.

경로분석을 수행하는 데 앞서 관측변수들의 정규성 판단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2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고 첨도는 절대값 7

이상을 넘지 않는 대체로 낮은 값들을 보일 때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왜도는 우율이 1.27, 일만족도가 .80, 삶의 만족도가 .41이었고, 첨도는 우율이 .93, 일만족도가 -.02, 삶의 만족도가 .30으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이는 경로분석을 통해 모수치를 추정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060)

Variables	Categories	n(%)	t/F (p)		
			Depression	Job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Age (year)	65~69	892 (29.2)	16.99 (<.001)	.43 (.789)	8.17 (<.001)
	70~74	869 (28.4)			
	75~79	877 (28.7)			
	80~84	363 (11.9)			
	85~	59 (1.9)			
Gender	Male	2372 (77.5)	-9.33 (<.001)	4.63 (<.001)	9.61 (<.001)
	Female	688 (22.5)			
Marital Status	Married	3056 (99.9)	1.10 (.270)	-2.89 (.062)	-2.47 (.089)
	Unmarried	4 (.1)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589 (19.3)	46.90 (<.001)	8.19 (<.001)	11.01 (<.001)
	Elementary School	1101 (36.0)			
	Middle School	625 (20.4)			
	High School	566 (18.5)			
	≥ Bachelor's degree	179 (5.8)			
Income of Household (10,000 won)	~999	464 (15.2)	38.58 (<.001)	8.96 (<.001)	12.85 (<.001)
	1,000~1,999	1135 (37.1)			
	2,000~2,999	647 (21.1)			
	3,000~3,999	337 (11.0)			
	4,000~4,999	207 (6.8)			
	5,000~	270 (8.8)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간에 우울, 일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우울($t=-9.33$,

$p<.001$), 일만족도($t=4.63$, $p<.001$), 삶의 만족도($t=9.65$, $p<.001$)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우울이 낮고 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우울, 일만족도,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우울은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대상자와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대상자 간,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대상자와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대상자 간, 80세 이상 85세 미만인 대상자와 85세 이상인 대상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 외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6.99$, $p<.001$). 일만족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F=.43$, $p=.789$), 삶의 만족도는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대상자와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대상자 간,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대상자와 75세 이상 80세 미만인 대상자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그 외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8.17$, $p<.001$).

대상 노인의 우울, 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우울과 일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r=.20$ ($p<.001$)이었고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r=.43$ ($p<.001$)이었다. 일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r=.30$ ($p<.001$)이었다. 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 절대값이 .9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관측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20~.43으로 분포되어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분석한 결과는 1.03~1.0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in the Elderly (N=3060)

Variables	Depression r (p)	Job Satisfaction r (p)	Life Satisfaction r (p)
Depression	1		
Job Satisfaction	.20 (<.001)	1	
Life Satisfaction	.43 (<.001)	.30 (<.001)	1

3. 우울, 일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경로모형

대상자의 우울과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Table 3]. 경로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변수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한 후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개념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표시한 모형의 그림은 선행연구에 따른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였으며 우울은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일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로 표시하였다. 또한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모형은 포화모형으로, GFI =1.000, RMSEA=.000이었으며 증분적합지수인 NFI=1.000, CFI=1.000으로 적합도 지수 모두가 기준에 부합하므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하였다. 우울로부터 일 만족도(C.R.=11.04, $p < .001$), 우울로부터 삶의 만족도(C.R.=23.58, $p < .001$)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만족도로부터 삶의 만족도(C.R.=13.75, $p < .001$)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로계수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for Path Analysis Model (N=3060)

Endogenous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S.E.	C.R.	SMC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Job Satisfaction	Depression	.00	11.04 (<.001)	.038	.20 (.009)		.20 (.009)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01	23.58 (<.001)	.229	.38 (.019)	.04 (.005)	.43 (.018)
	Job Satisfaction	.05	13.75 (<.001)		.22 (.009)		.22 (.009)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are shown in each effect size;

4.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경로모형의 각 관측변수들 간 효과분해 (Effect decomposition)를 위해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

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이용하고 그 결과를 [Fig. 2]와 [Table 3]에 표시하였다.



Fig. 2. Model of depressio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ith parameter estimates. (* $p < .05$, ** $p < .01$)

연구모형에서 우울로부터 삶의 만족도로의 관계에서 일 만족도를 매개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경로의 효과분해 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우울로부터 일 만족도로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효과 크기는 .20($p=.00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우울로부터 삶의 만족도로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효과크기는 .38($p=.01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일 만족도로부터 삶의 만족도로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효과크기는 .22($p=.009$)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크기에 있어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 만족도가 매개되었을 경우 .04($p=.005$)의 효과크기가 더해져 .43($p=.018$)이 되었으며 간접효과가 유의하여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Sobel 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통계량은 $Z=7.17(p < .001)$ 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노인의 우울과 일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 여부를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은 단축형 노인우울척도 (SGDS-K)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평균은 2.91점이었

다. 또한 일 만족도 평균은 2.47점, 삶의 만족도 평균은 14.5점이었는데 이는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13]에서 보고한 우울 4.09점, 일 만족도 3.46점, 삶의 만족도 10.68점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대상자가 보다 덜 우울하면서 일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마다 정부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30]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 설문 자체가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이고 설문 시점에 따라 응답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에는 제한이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특히 성별에 따라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우울이 낮고 일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13][1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노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별이 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24][31]도 있어 연령층에 따라 성별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일 만족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60세 이상의 택시운전자 35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32]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일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를 볼 때 다양한 직업군에 따른 일 만족도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모두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울이 삶의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고[5] 일 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에 있으며[22] 일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들의 결과[13][18-20]와 일치한다. 그러나 노인이 아닌 승무원 29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33]에서 우울은 일 만족도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어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차이와 함께 특정 직업군에 따라 상관관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로분석으로 경로계수를 검정한 결과, 우울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20으로 유의하였고 일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 또한 .22로 유의하였다. 이는 복지관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5]에서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29였던 결과를 지지하며 취업지원센터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18]에서 일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를 16.8%를 설명한다고 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노인 뿐 아니라 20세에서 60세 사이의 직장인 39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일의 의미는 삶의 만족도를 32.8%를 설명한다고 보고한 결과[34]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38로 유의했을 뿐 아니라 일 만족도를 매개로 했을 때 간접효과 .04가 더해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크기가 .43이 되어 우울은 일 만족도를 부분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의 우울과 일 만족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22.9%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노인의 경제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활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14]나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일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22]를 고찰해 볼 때 노인의 경제활동 내지는 사회활동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만족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이나 지역사회,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벗어나 독립적인 노년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자아실현이나 삶의 만족을 포함한 정서적 안정감을 충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알 수 있었던 노인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일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울이 있음에도 일 만족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추가로 밝혀낸 결과로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제활동 노인의 다양한 직업군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차자료 분석 연구로서 다양한 연구 도구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우울 예방 중재 프로그램과 함께 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노인이 일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있어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여성 노인에 대한 일자리 요구도 조사나 경제활동 노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111574344936>, 2019.4.8.
- [2] <https://news.joins.com/article/19241800>, 2019.4.8.
- [3] 김형수, 권이경, “한국 노인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36-245, 2013.
- [4] 문성미, “노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건강상태, 건강행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6호, pp.259-271, 2017.
- [5] 심선숙, 방미란, “일 지역 노인의 우울, 가족지지 및 삶의 만족도,” 재활간호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22-128, 2017.
- [6] 김수희, 정종화, 송진영,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73권, 제3호, pp.167-191, 2018.
- [7]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3/170008/>, 2019.4.11.
- [8]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4070&board_cd=INDX_001, 2019.4.11.
- [9] 강서영, 박인혜, “일 장수 지역 거주 노인의 삶의 질 모형구축,”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4권, 제3호, pp.302-313, 2013.
- [10] J. Rowe and R. Kahn, *Successful Aging*, reprinted, Pantheon Books: New York, 1999.
- [11] S. Ghimire, B. K. Baral, I. Karmacharya, K. Callahan, and S. R. Mishra, “Life satisfaction among elderly patients in Nepal: associations with nutritional and mental well-being,” Health Qual Life Outcomes, Vol.16, No.1. p.118, 2018.
- [12] 황라일, 임지영, 임영휘, “노인의 인지 기능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비교,”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제39권, 제5호, pp. 622-631, 2009.
- [13] 심옥수, “경제활동 노인의 일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우울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17권, pp.161-179, 2015.
- [14] 신용석, 원도연, 노재현,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참여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7호, 제2호, pp.216-250, 2017.
- [15] 강종필, 윤지영, “다층모형을 활용한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생산적 여가참여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5호, pp.89-98, 2017.
- [16] http://kosis.kr/conts/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11&NUM=1100, 2019.4.11.
- [17]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4624>, 2019.4.11.
- [18] 김춘지, 이수영, “일자리참여 노인의 직무만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여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경영연구, 제4권, 제1호, pp.101-124, 2017.
- [19] 박현숙, 박용순, “고령자의 직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1권, pp.85-110, 2013.
- [20] 지은정, “개인-직무적합의 관점에서 본 노인의 일과 삶의 만족도: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3권, 제2호, pp.189-224, 2017.
- [21] 이병임, 김두리, 임효남, 김광환, “독거노인의 행복과 경제활동의 참여욕구에 대한 융합 연구,”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제9권, 제8호, pp.109-116, 2018.
- [22] 장재원, 이준상, “노인돌보미의 감정노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일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23호, pp.31-54, 2013.
- [23] 이혜경, 남춘연,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우울, 심리적 행복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1권, 제4호, pp.490-498, 2015.
- [24] 이영란, 박선남, 이미란,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우울, 지각된 건강상태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25권, 제4호, pp.259-267, 2016.
- [25]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오미애, 강은나, 김경래, 황남희, 김세진, 이선희, 이석구, 홍송이,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26] 우국희, 주경화, 이연순, “취업노인의 직장내 연령차별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9권, 제4호, pp.281-304, 2012.
- [27] 김주현, 주경희, 오혜인, “경제활동 노인의 연령 차별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노인복지연구, 제60권, pp.287-321, 2013.
- [28] 현의성, *노인복지학신론*, 학현사, 2011.

- [29] 조맹계, 배재남, 서국희, 함봉진, 김장규, 이동우, 강민희, “DSM-III-R 주요우울증에 대한 한국어판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8권, 제1호, pp.48-63, 1999.
- [30]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34371>, 2019.4.11.
- [31] 이선영, 이홍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개인 및 직무특성, 전문직업성, 조직몰입과 우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제25권, 제3호, pp.162-169, 2017.
- [32] 서경조, 조성숙, “직업활동 참여 노인의 개인-환경 적합성과 업무스트레스 및 만족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248-264, 2013.
- [33] 한의진, 조영일,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항공 객실승무원들의 우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관광연구, 제28권, 제4호, pp.117-135, 2013.
- [34] 최주연, “직장인의 일의 의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3권, 제4호, pp.221-235, 2018.

저 자 소 개

오 영 경(Yeong-Kyong Oh)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4년 2월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암환자 간호, 삶의 질, 정신건강